



준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해외포교로 노벨문학상 수상 앞당겨야

수년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고은 시인이 올해도 세계 문학의 높은 산을 넘지 못했다. 2006년부터 연이은 고은 시인의 고배는 유럽의 문화적 뒷배와 별개로 한국작품의 번역 한계를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웃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2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으로 1968년에, 오에 겐자부로가 1994년 '만연원년의 풋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1979년부터 100여권의 도서 번역을 지원한데 비해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2만여 종의 해외출간을 지원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보다 20배 가까이 자국문학의 해외출간에 공을 들인 오랜 노력의 결과다. 물론 그 이전에는 메이지유신 등을 거치며 일본을 서구에 일찍 알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9월 29일, "1970년대 이후 영어로 번역된 장·단편소설 41편 70종 가운데 41%(21종)가 총칭성과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C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영미권 독자가 작품을 몰입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한 A등급 작품은 10%(7종) 뿐이었다. 번역의 양과 질 모두 문제점은 틀림없다. 이처럼 노벨문학상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고민하듯, 불교계 구성원 다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이들은 영문본서 간행과 보급, 해외 포교승 파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1897년 미국에 건너간 스즈키 다이세츠는 영문 저술을 통해 서양에 '젠(zen)'을 소개했다. 티베트 승려들이 미국에 상륙한 것이나, 송산 스님이 하버드대 대학원생인 헨크 스님을 제자로 거둔 것도 영어로 법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까무잡잡하다'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번역기술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은 문화가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문학에서 불교를 빼놓을 수 없기에 불교도서의 번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욱이 고은 시인 작품의 사상적 배경은 불교가 아니냐. 이런 가운데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영역 확대 등을 목표로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 '해외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번역 인력과 예산 확보다. 이들의 고충을 정부가 나서 해결한다면 한국 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어시어론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계종 웹도서관 오픈

37만여 기록물 검색 가능·고승자료 수집도

37만 여건의 불교관련 기록물과 2만5000여권의 불서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불교정보포털서비스가 시작했다. 불교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조계종 중앙기록관(관장 원학, 총무원 총무부장)은 10월 6일 홈페이지(lib.buddhism.or.kr)를 통해 웹도서관을 오픈했다. 이 웹도서관은 기존 불교서적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각종 학위논문과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불교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적의 목차와 서평, 요약문도 있고 있어 원하는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서점 사이트와 연계돼 있어 새로 나온 불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웹도서관은 중앙기록관이 소장한 도서 이외에도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관련 기관이 보유한 서적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 아울러 국회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도 접근할 수 있어, 불교관련 현안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언론과 일반 언론에 게재된 '최신 언론사 뉴스' 코너도 불교뉴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특히 웹도서관은 오프라인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웹도서관에서 검색한 도서가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 기록관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사도 가능하다. 기록관은 향후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중앙기록관은 이와 함께, 사찰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도 펼친다. 기록관에 들어오는 장서 가운데 겹치는 서적을 골라 지원

을 원하는 사찰에 배포하고, 불서 보내기 캠페인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중앙기록관은 불교관련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근현대 고승은 물론 역대 종정, 총무원장, 제방 스님들의 기록물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기록관은 본·말사에서 보존중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기록관 관장 원학 스님은 "중요 스님의 기록물의 수집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불교사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술적 목적 등의 활용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이용서비스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자료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우 기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환경보호' 주제 제11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개최 제1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한국대회가 10월 9~11일 제주도에서 3국 불교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10일 관음사에서 봉행된 세계평화회원 대법회 후 가진 기념촬영 장면. 사진제공=조계종 김성우 기자

"출가자 인권 위해 견제장치 등 필요"

김종빈 前 검찰총장,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서 주장

"승려에게는 사형 등 생명과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없지만 승적박탈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출가자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변호사·사진)은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에서 조계종 양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기소절차와 호법부의 구형제도'를 발제한 김 변호사는 출가자 인권보호를 위해 처벌절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조계종은 법이 아닌 호법부 '업무규정(총령 제86호)'과 '사건사무규정(총령 제93호)' 등 증명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호법부에게 치중된 호법부 권한을 통제할 장치가 미

흡하다"며, "호계원·호법부에 재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소시효제도가 호법부의 징계회부에는 없다"며, "자의로 특정 승려의 오래된 비위를 들춰내 징계회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성철 변호사(前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와 정준현 학장(단국대 법과대)이 각각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전통사찰 규제법령 일원화 논의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 1차 회의 열려

불교계 관련 규제와 법령, 제도 정비를 위한 교계·정부간 논의가 처음 시작했다.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 1차 회의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제2차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TF팀은 불교계와 청와대, 문화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됐다. 팀장은 문화부 권경상 총무실장이다. 교계 관계자와 정부부처 실무과장급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통사찰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통사찰법(이하 전사법)은 전통사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됐지만, 정부 부처

포교부장에 계성 스님

조계종 포교원 인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계성)은 10월 10일 포교부장에 계성, 포교연구실장에 동성, 포교국장에 부명, 신도국장에 정무, 사무국장에 원교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사진)은 1977년 화계사에서 중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1년 해인사에서 교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원 교육부장(1999-2001), 전등사 주지, 군종특별교구 부교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유가사 주지 및 예비역군승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은사는 서운 스님. 노덕현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 지관 스님 예방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정감사기간(10월 6-25일) 첫날인 6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동안 나라의 발전동

력과 국토잠재력을 확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일정 중 해인사를 방문해 법전 종정스님도 예방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사),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동현(前 KBS/동아TV/서울경제,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02-2004-8279

부처님진신사리 8각10층 석탑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불행 조계사 28고승초청 범화산림법회 및 343일조상천도법회 행 불기 2552(2008)년 범화산림법회 일장 및 법사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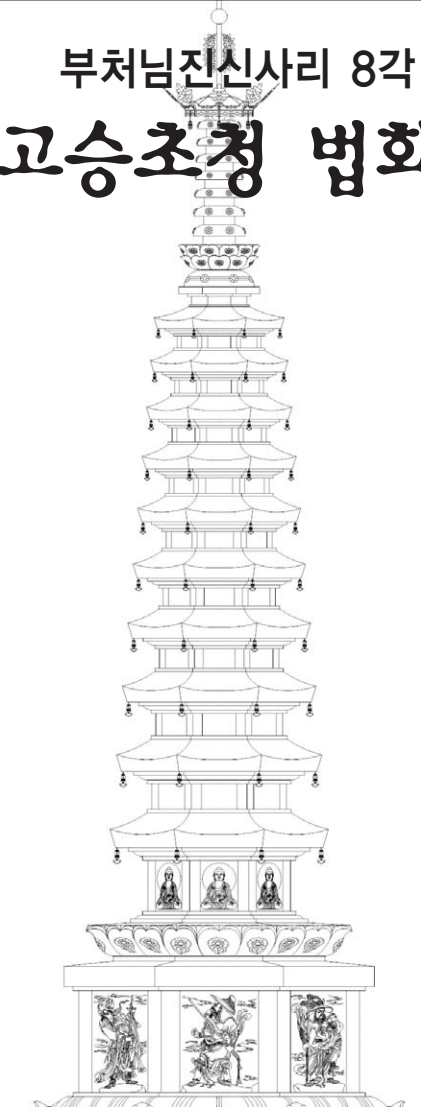


Table with columns: 순서, 일정, 법문내용, 법사스님. Lists 28 items for the Buddhist ceremony.